

호주 쇠고기 생산·수출 동향과 전망¹⁾

허 덕(해외곡물시장 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김태련(해외곡물시장동향 담당자)**

1. 서론

호주는 세계에서 3번째 쇠고기 수출국이며, 한국이나 일본으로서는 최대 쇠고기 수입 상대국이다.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과 호주를 포함 11개국이 참가하는 '환태평양 파트너십에 관한 포괄적 및 선진적인 협정'(이하 TPP11 협정²⁾) 이 2018년 12월 30일에 발효되었다. TPP11협정 발효에 따라 TPP11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들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관한 관세가 삭감되거나 철폐되면서, 호주의 기간산업인 쇠고기 업계에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

쇠고기 생산에 눈을 돌리면, 호주에서는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주산지인 동부에 광범위하게 가뭄이 발생하여 번식암소를 중심으로 도태가 진행되고 있어, 육용우 사육두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곡물비육(feedlot, 이하 피드롯 혼용) 소 사육두수가 과거 최고를 기록하는 등, 호주의 쇠고기 생산은 커다란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향후 그 동향이 주목된다.

먼저, 이 글에서는 가뭄에 따른 쇠고기 생산의 영향과 곡물비육 사육두수가 과

* huhduk@krei.re.kr

** ryun0131@krei.re.kr

- 1) 이 글은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3월호의 '호주의 쇠고기 생산·수출 동향'을 기초로 하여 호주 쇠고기 수급을 중심으로 내용을 업데이트, 재편집·수정·보완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 2)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으로 통칭 또는 약칭으로 TPP11이라 한다. 기초(起草)는 2015년 10월 5일, 서명은 2016년 2월 4일 오클랜드에서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가맹국간 관세철폐, 투자가 대 국가의 분쟁해결·지적재산권(특허·저작권 보호기간 등)·투자에 관한 규칙(rule) 등 이다. 2016년 1월 26일에 조문이 공개되고, 참가국 12개국이 2월 4일에 서명하였다. 교섭 참가국 12개국 중 미국은 2017년에 탈퇴하였으며, 미국 이탈 후, CPTPP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TPP12」라 통칭하기도 한다. 참가국 11개국 중 멕시코(2018. 6. 28.), 일본(2018. 7. 6.), 싱가포르(2018. 7. 19.), 뉴질랜드(2018. 10. 25.), 캐나다(2018. 10. 26.), 호주(2018. 10. 31.), 베트남(2018. 11. 15.) 등 7개국은 서명이 완료되었으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등 4개국은 2018년 11월 15일 현재 아직 서명하지 않은 상태이다.(출처: 일본농무성, www.maff.go.jp)

거 최고를 기록한 배경을 알아보고, TPP11 협정 발효에 따른 호주에서 참가국용 쇠고기 수출에 관한 관세 측면의 변화 등에 대해, 그리고 2018년 11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단의 현지 조사 결과에 대해 정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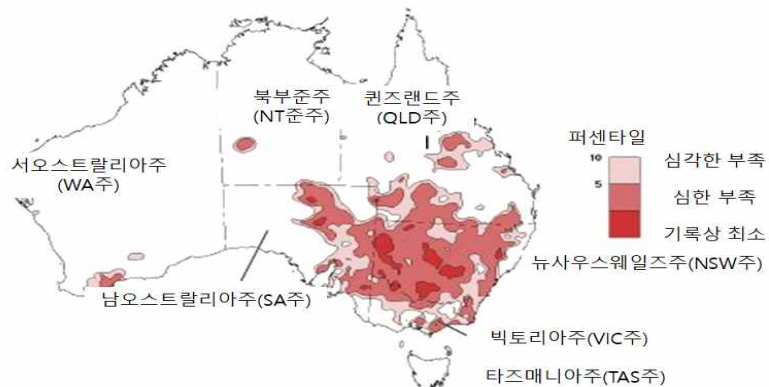
이 글 중 호주의 연도는 7월~이듬해 6월이며, 환율은 1호주 달러=81엔=850.5원(2019년 1월 말일 TTS 레이트³⁾)을 적용하였다.

2. 가뭄으로 인한 쇠고기 생산의 영향

(1) 가뭄 상황

호주에서는 2018년 1월 이후 동부를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육용우 생산 주산지인 뉴사우스웨일스(NSW)주, 퀸즐랜드(QLD)주 및 빅토리아(VIC)주에서 광범위하게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그림 1, 2, 3). 광대한 땅을 가진 호주에서는 부분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가뭄이 발생하는데, 지금처럼 가뭄이 광범위에 이른 적은 드물며, 20년만의 심각한 가뭄이라고 한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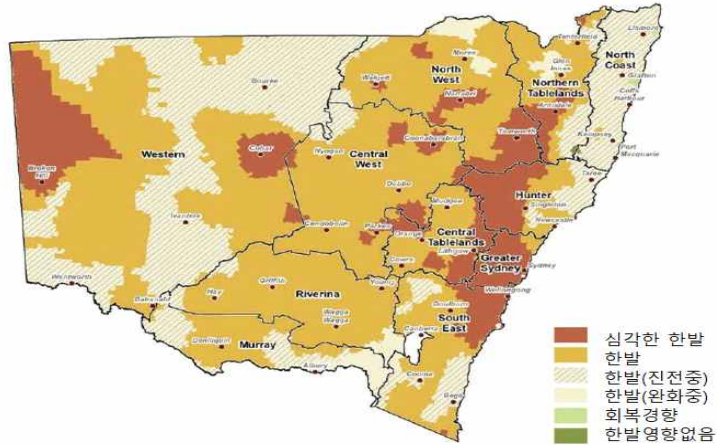
그림 1. 호주의 강우 부족 상황



3) 원/엔 환율은 10.5원/엔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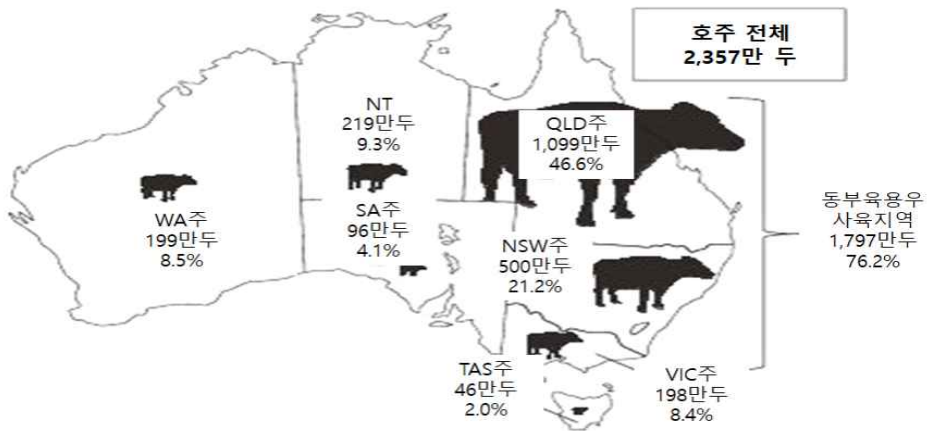
4) 2018년 이후의 호주 기상상황에 대해서는 본지 각 호의 이충식,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과 허 덕 외, '호주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을 참조하길 바라며, 2020년 2월 이후의 기상에 대해서는 본지 이번 호(2020년 9권 2호)의 이충식,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을 참조하길 바란다.

그림 2. 호주 한발 상황



주 1: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의 한발 상황
 2: 강수량, 토양함수량, 식물 생육 정도 3가지 지표 중 모두 5퍼센탈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한발', 하나라도 5퍼센탈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한발', 하나라도 30퍼센탈을 하회하는 경우 및 최근 90일간 강수량이 평년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한발(진전중)', 하나라도 30퍼센탈을 하회 및 직전 90일간 강수량이 평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한발(완화중)', 3가지 지표 모두가 30퍼센탈 이상 50퍼센탈 미만인 경우에는 '회복경향', 하나라도 50퍼센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한발영향없음'으로 구분.
 자료: NSW주 정부,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3월호에서 인용

그림 3. 호주의 주별 소 사육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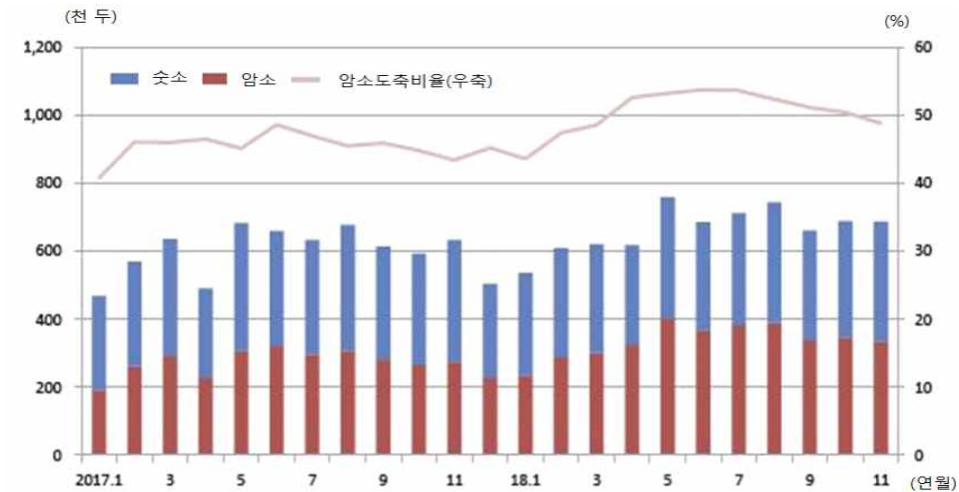


주: 주별 두수는 2017년 6월말 기준
 자료: 호주농업자원경제과학국(ABEARS) 자료를 기준으로 ALIC 작성.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3월호에서 인용

(2) 가뭄의 영향

가뭄은 호주 쇠고기 생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18년 1~11월 성우 도축두수는 732만 두(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로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암소는 371만 두(22.5% 증가)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그림 4). 가뭄으로 인한 목초 생육환경 악화로 많은 생산자가 축군을 축소하기 위해 번식용 암소를 중심으로 도태하고 있다.

그림 4. 호주 성우 도축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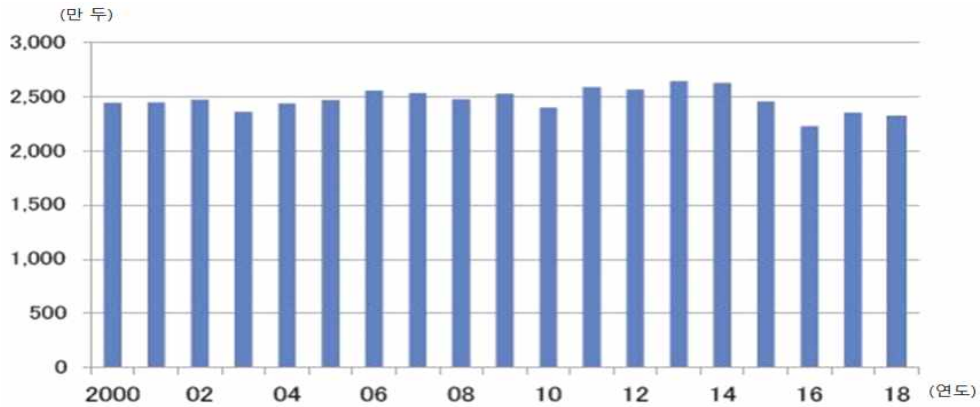


자료: 호주통계국(ABS) >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3월호에서 재인용

호주 육용우가축생산자사업단(이하 MLA⁵⁾)에 따르면, 도축에서 차지하는 암소 비율이 47%를 웃돌아 소 사육두수가 감소 기조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8년 이 비율은 3월 이후 47%를 상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2018년 6월 육용우 사육두수는 2,320만 두(1.7% 감소)로 감소하였고, 앞으로 더 감소가 예상된다(그림 5).

5) Meat & Livestock Australia 약칭 MLA는 호주축산공사라고도 하며, 호주의 소, 양, 염소 생산업자들에게 마케팅과 연구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MLA에는 약 50,000명의 축산업자 회원들이 주주권을 가지고 있다.(출처: 호주축산공사 홈페이지: <https://www.trueaussiebeef.co.kr/aboutus/#>)

그림 5. 호주의 육용우 사육두수 추이



주 1: 각년도 6월말 시점
 주 2: 2018년은 예상치
 자료: 호주통계국(ABS),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3월호에서 재인용

또한, 가뭄의 영향은 사료 생산에도 미치고 있다. 호주의 주요 사료용 곡물인 밀 및 보리 등 겨울작물 생산량은 2017/18년도에는 3,796만 톤(전년도 대비 33.0% 감소)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NSW주에서만 보면, 723만 톤(53.4% 감소)으로 절반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이어 2018/1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2,927만 톤(22.9% 감소), NSW주에서만 보면, 314만 톤(56.6% 감소)으로 2년 연속으로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표 1)

표 1. 지역별 동계작물 생산량 전망

단위: 만톤

지역	16/17년도	17/18년도	18/19년도	전년대비 증감율
WA주	1,773.7	1,461.9	1,626.7	11.3%
SA주	1,066.1	694.5	522.6	- 24.8%
VIC주	951.3	765.2	374.4	- 51.1%
NSW주	1,551.0	722.8	313.7	- 56.6%
QLD주	315.9	146.3	80.2	- 45.2%
합계	5,667.8	3,796.3	2,926.8	- 22.9%

자료: 호주농업수자원성(DAWR), NSW 주정부,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3월호에서 인용

때문에 밀 및 보리 거래가격은 대폭 상승하였다. QLD주 달링 다운즈 지역의 밀 및 보리 거래가격을 보면, 2017년 1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6).

그림 6. 호주 달링 다운즈 지역의 밀 및 보리 거래가격 추이



자료: MLA,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3월호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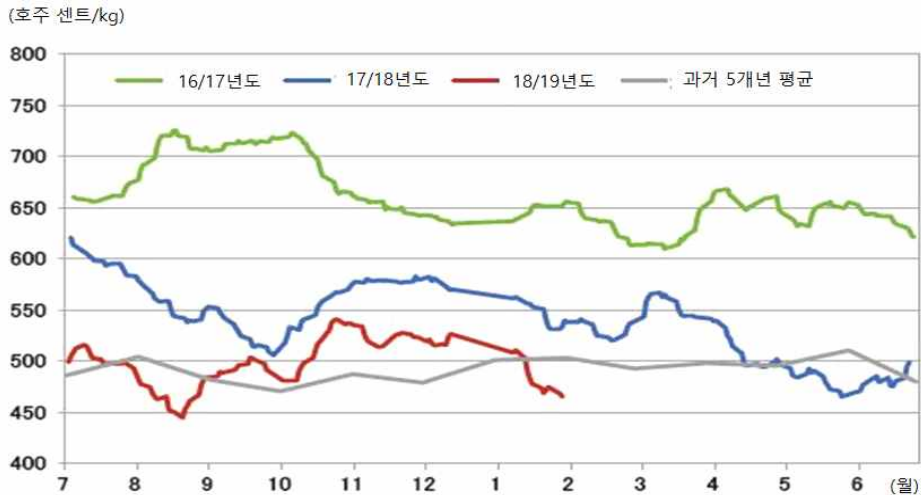
최고치를 기록한 2018년 10월 시점에서는 밀이 1톤당 461호주 달러(3만 7,341엔=39만 2,080.5원), 보리가 440호주 달러(3만 5,640엔=37만 4,220원)로 2017년 1월 시점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상승하였다. 이어 가뭄으로 인해 목초 생육이 나빠져 건초 거래가격도 2배 가까이 오른 지역도 있다. 이처럼 사료가격의 대폭적인 상승은 생산자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

이 밖에 목초생육에 관개를 이용하는 생산자에게는 관개용수 취득가격도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뭄으로 댐의 저수율이 낮아지면서 관개용수 취득가격도 크게 높아졌다.

가뭄은 육용우 거래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육용우 거래가격 지표 중 하나인 동부지구 미성숙우 지표가격(EYCI⁶⁾) 추이를 보면, 2014/15년도에 QLD주를 중심으로 발생한 가뭄으로 인해 소 사육두수가 줄면서 과거 2016년 8월에는 1kg당 726호주 센트(588엔=6,174원)로 최고를 기록하였다(그림 7).

6) Eastern Young Cattle Indicator. EYCI는 호주의 일반 소시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EYCI 지수는 1kg 도체중(屠體重, 또는 정육중량)당 센트(cents/kg cwt)로 표현된 7일 연속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뉴사우스웨일즈, 퀸즐랜드, 빅토리아 주의 26개 세일레이드의 판매 데이터에서 산출된다. 이 지수는 매일 MLA의 축산신고 서비스(NLRS)에서 생산한다. 이에 포함되는 데이터는 vealer, yearling, heifers, steers 등의 가격이며, 스코어 C2 또는 C3, 생체중 200kg 이상의 소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소만 포함된다. 여기에는 도살, 축사보충, 또는 로트피딩 등의 용도로 구입한 소가 포함된다. EYCI는 MLA/SFE(호주축산공사/시드니 선물교환 소 선물계약)의 근거로도 사용된다.(출처: 일본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Eastern_Young_Cattle_Indicator)

그림 7. EYCI 가격 추이(2016/17-2018/19. 2월)



주 1: 연도는 7월부터 다음해 6월
 주 2: 동부지구 젊은 소의 가중평균 거래가격으로, 가축거래의 지표가 되는 가격. 비육우와 경산우과도 상관관계가 있음.
 자료: MLA,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3월호에서 재인용

그러나 그 후 소 사육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하락세로 움직이며, 2018년에는 재차 1월 이후의 가뭄으로 인해 비육부문에서도 소 도입 의욕이 저하되어 계속 하락 추세를 보였다. 8월에는 2015년 4월 이후 40개월 만에 동 450호주 센트(365엔=3,832.5원)를 밀돌았다. 10월 및 11월 말경 강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격은 한 때 달러당 550호주 센트(446엔=4,683원) 근처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지만, 12월 이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다시 하락하여 2019년 1월에는 500호주 센트(405엔=4,252.5원)를 밀돌았다.

(3) 가뭄으로 피해를 본 생산자 지원

호주에서는 정부의 생산자 생산 진흥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책은 드물다. 하지만, 가뭄은 자연재해처럼 호주 생산자경영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가뭄피해를 본 생산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미 2013년부터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으로 복수년도분(複數年度分) 예산 총액 13억 호주 달러(1,053억 엔=1조 1,056.5억 원)의 지원방안을

실시하고 있는데, 심각한 가뭄인 2018년 8월 가뭄에 의해 수입이 끊긴 농가를 위한 가계지출에 보조금액을 증액하거나 저리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다. 2013년부터 실시한 복수년도분 예산을 포함하면, 가뭄지원 예산 총액은 18억 호주 달러(1,458억 엔=1조 5,309억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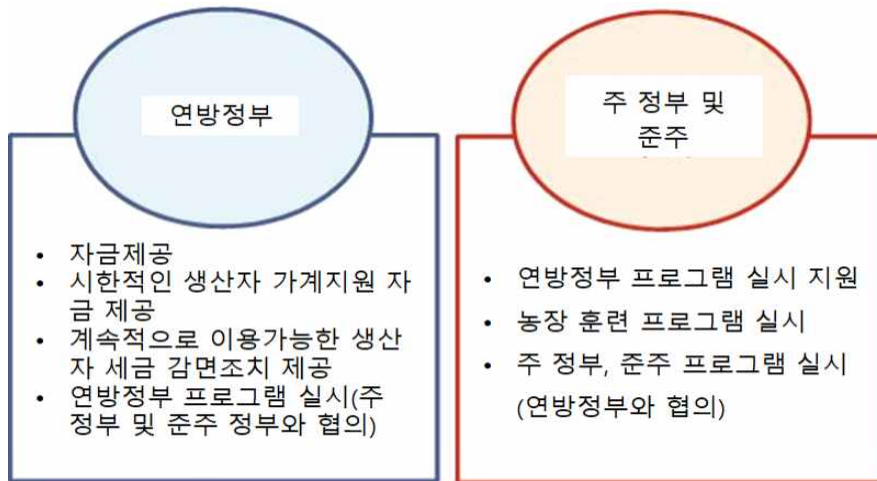
이어 스콧 모리슨 총리는 2018년 10월, 농축산업이 앞으로 발생할 가뭄에 준비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50억 호주 달러(4,050억 엔=4조 2,525억 원)의 '미래 가뭄기금(Future Drought Fund)⁷⁾'을 설립한다고 발표하였다.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역행정 서비스, 연구,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을 위한 기술과 시설 도입 등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또 NSW주 정부는 2015년부터 2020년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으로 3억 호주 달러(243억 엔=2,551.5억 원)의 사업을 실시하였다. 2018년 7월에는 긴급가뭄대책으로 사료와 가축 수송경비 보조, 행정서비스 수수료 납부기한 연기, 저리 대출 증액 등 총 5억 호주 달러(405억 엔=4,252.5억 원)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외에도 카운셀링 서비스 확충 등 예전부터 강구하고 있던 3억 호주 달러(243억 엔=2,551.5억 원) 대책 등을 포함하여 총 11억 호주 달러(891억 엔=9,335.5억 원)의 가뭄대책을 준비하였다.

가뭄대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준주(準州)는 공동으로 가뭄대책 실시방침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가뭄대책에서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놓고 있다(그림 8).

7) 로이터는 호주 정부가 가뭄을 겪은 농가를 돕고, 물 관련 연구 등에 사용할 '미래가뭄기금(Drought Future Fund)'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계획은 2018년 10월 26일(현지시각)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국가가뭄 정상회의(National Drought Summit)'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앞으로 발생할 가뭄에 대비해 기금을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기금 조성을 더는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절박하다"고 말했다. 기금은 긴급 구호자금뿐 아니라 물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관련 연구 등에 쓰일 전망이다. 재원은 호주 정부가 교통·통신 인프라 구축용으로 마련해둔 기금을 가뭄 전용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호주 정부는 기금이 예정대로 조성되면 매년 1억 호주 달러의 자금을 가뭄 관련 연구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2028년까지 기금 규모를 50억 호주 달러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또한, 호주 정부는 가뭄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약 18억 호주 달러를 편성해 투입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도 가뭄 극복에 10억 호주 달러를 지원했다.(출처: 농민신문 2018년 10월 31일자 기사, '호주, 3조 규모 가뭄 전용 기금 조성 착수').

그림 8. 한발대책으로써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역할



자료: NSW주 정부,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3월호에서 재인용

가뭄이 가장 심각한 NSW주의 생산자를 예로 들면, 가뭄피해를 본 생산자는 <표 2>와 같이 연방정부와 NSW주 정부가 각각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가뭄대책은 합의서에 따라 저리대출과 세금감면 조치 등이 중심이다. NSW주 정부가 제공하는 가뭄대책에서는 주 독자의 무이자 및 저리 대출과 사료, 가축 수송경비 보조 등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 <표 2>에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도 지역의 행정서비스 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카운셀링 서비스 무상 제공 등과 같은 지원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지원책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생산자가 자신이 가뭄으로 인한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지원책이다.

표 2. 한발피해를 본 NSW주 생산자가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책

제공처	지원책	주요 내용
연방 정부	생산자 가계 수당 (한발에 국한하지 않고, 경영적으로 어려운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최대 4년간 각 대상자에게 지원액이 다른 기본수당(뉴스타트 수당에 서 독신자이면 2주간 마다 최대 550.2 호주달러 등)에 더해, 생산자 집세, 통신비, 약값 등에 보조하거나, 기술향상을 위한 연수 등에 보조 를 받을 수 있음. 또한, 2018/19년도에는 독신자에 대해 최대 7,200 호주달러, 2인 이상 세대에게는 최대 2,000호주 달러를 추가적으로 지급될 수 있음.
	조기 감가상각	물 저장시설 취득에 요하는 비용의 감가상각기간을 3년에서 1년, 사 이로 등 사료저장시설은 최대 50년에서 3년(2018년 8월 이후 도입 한 것은 추가로 1년을 단축 예정), 펜스는 최대 30년에서 1년으로 단 축
	농장경영준비금	수입이 많은 연도에 최대 80만 호주 달러를 준비금으로써 무세로 적 립, 한발 등의 피해에서 경영을 재건할 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음.
	한발대책 론	생산자가 한발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한발 영향을 회복하기 위해, 1 경영당 최대 200만 호주 달러를 저리로 대부함.
NSW 주정부	한발시 수송경비 보조	물이나 사료 수송에 드는 경비를 연간 2만 호주 달러(최대 19개월 분 으로 3만 호주 달러)까지 보조. 수송경비의 반을 보조. 단, 1kg당 5호 주 달러, 하나의 수송은 최대 1,500km 까지.
	애니멀 웰페어 수송경비 보조	한발에 의해 사료가 고갈되는 등, 애니멀 웰페어 상 문제가 발생한 생 산자가 가축을 수송할 때 드는 경비의 반을 연간 최대 2만 호주 달러 까지 보조
	기부사료 수송경비 보조	한발 피해를 받은 농장에게 사료를 기부하는 경우, 수송에 드는 경비 를 전액 보조. 단, 1km당 5 호주 달러, 하나의 수송은 최대 1,500km 까지
	농장 이노베이션 자금	생산성과 농지의 지속성 향상을 위해 시설을 새로 도입하는 생산자에 대해 최대 25만 호주 달러를 저리로 융자함.
	한발 지원 자금	가축, 사료 및 물 수송이나 유전자원 보존, 사료나 물 저장시설 도입 등을 위해 최대 5만 호주 달러를 무이자로 대부. 개시 후 2년간은 변 제 불필요.

자료: 호주농업수자원청(DAWR). NSW 주정부.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3월호에서 재인용

3. 곡물 비육 쇠고기 생산·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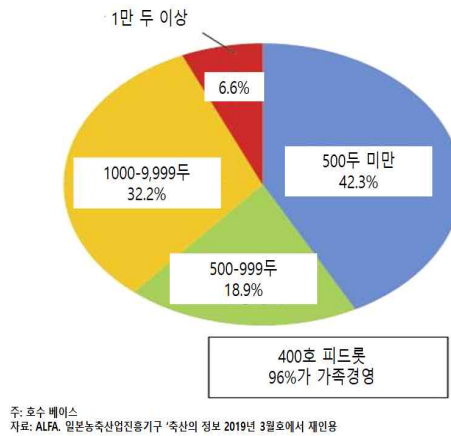
(1) 호주 곡물비육장 업계 개요

호주의 쇠고기 생산은 광대한 국토를 활용한 방목에 따라 생산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가뭄이 종종 발생하여 목초생육이 안정되어 있지는 않다. 호주에서 곡물비육장을 활용한 곡물비육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17년에

는 도축 두수 전체의 40%를 곡물비육 쇠고기가 차지하였다.

호주 곡물비육장협회(이하 ALFA⁸⁾)에 따르면, 호주에는 400호의 피드롯이 존재한다고 한다. 곡물비육장에 대해 물어 보면, 많은 사람들은 대규모 기업경영이라고 상상할지 모르지만, 호주에서는 호수 기준으로 96%가 가족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육두수가 500두 미만인 곡물비육장은 호수 기준으로 42.3%를 차지한다(그림 9). 한편, 전 사육두수의 80% 중 상위 20%는 곡물비육장이 차지하고 있으며, 매우 큰 규모의 피드롯도 존재하고 있다.

그림 9. 피드롯 사육두수 규모별 비율



곡물비육 쇠고기를 생산하는 소 사육두수를 지역별로 보면, 58%는 QLD주, 31%는 NSW주, 6%는 VIC주에 위치하고 있는 등 동부 3개 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호주에서 곡물비육(Grainfed) 쇠고기 인증을 받으려면, 전국비육장인증제도(National Feedlot Accreditation Scheme, 이하 NFAS⁹⁾)에 의해 인정된 곡물비육

8) The Australian Lot Feeders' Association. ALFA는 호주 소 피드롯(곡물비육장) 산업을 대표하는 최고 전국기관이다. ALFA 회원은 호주 소 피드롯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출처: ALFA 홈페이지: <https://www.feedlots.com.au/association>)

9) 호주는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중 NFAS 즉, 전국곡물비육장인증제도가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전국가축식별제도, 꼬리/귀표시스템, 전국농장식별코드 등의 시스템 등이 있다. 전국곡물비육장인증제도(NFAS)는 수출용 곡물 비육의 위생 및 생산 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료와 용수의 안전성, 수의학적 치료, 살충제 검사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제도이며, 전국가축식별제도(NUS)는 라디오주파수(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제도로 질병 통제와 원인 규명에 활용한다. 꼬리/귀표 시스템(Tail/Ear Tag System)은

장에서 비육되고, 지육 등급에서 특정 기준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표 3).

표 3. 곡물 비육 쇠고기의 인증 기준

구분	곡물비육 일수	일령 (치아상태)	P8사이트 지방두께 ^{주)}	육색	지방색	사료
그레인페드 (GF)	100일	영구문치 6개 이하 (지육홍추골화가 부분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경우 제외)	7mm 이상	1A, 1B, 1C-3	0-3	육우는 인증피드롯에서 최저 100일 비육하고, 그 중 80일 이상은 곡물을 주로 하는 영양적인 밸런스를 갖춘 고에너지사료를 급여하여야 함. 사료 건조중량 1kg당 평균 대사에너지가 10메가줄 이상이어야 함.
그레인페드 미성숙우 (GFYG)	70일	영구문치 0-2개	5mm 이상	1A, 1B, 1C-3	0-3	육우는 피드롯에서 최저 70일(암소는 60일) 비육하고, 그 중 50일 이상은 곡물을 주로 하는 영양적인 밸런스를 갖춘 고에너지사료를 급여하여야 함. 사료 건조중량 1kg당 평균 대사에너지가 10메가줄 이상이어야 함.
그레인페드 피니쉬드 (GFF) ※2018년 9월부터 새로 도입)	35일 (거세우 및 암소)	생산 및 식육가공단계에서 미트 스탠더드 오스트랄리아(MSA) 등급 기준 모두에 적합한 것				육우는 인증피드롯에서 최저 35일 이상 비육하고, 그 중 최저 28일 이상은 곡물을 주로 하는 영양적인 밸런스를 갖춘 고에너지사료를 급여하여야 함. 사료 건조중량 1kg당 평균 대사에너지가 10메가줄 이상이어야 함.

주 1. 1메가줄은 약 2,390kcal에 해당.

2. 호주에서는 영구문치(永久門齒), 절치(切齒)와 견치(犬齒), 소위 전치(前齒)의 수와 연령으로 쇠고기를 구분(예: Yearling, Young 등)하고 있음.

3. P8 이란 오즈미트가 정한 지방두께를 측정하는 부위

4. 육색, 지방색은 오즈미트가 기준에 따라 구분.

자료: 오즈미트.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3월호에서 재인용

NFAS는 곡물비육 쇠고기의 품질보증제도이며, 곡물비육장에서 생산되는 곡물 비육 쇠고기의 품질 통일, 안전성 확보, 통합 확보, 곡물비육장이 완수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크게 다섯 가지 관점에서 곡물비육장 인증기준을 정하고 있다(표 4).

소를 매대하거나 도축할 때는 꼬리/귀표가 부착되어 따라다니고, 소에 남아 있는 모든 잔류물 상태가 중앙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는 시스템이다. 전국농장식별코드(PIO)는 소의 이력을 추적하는 기본 시스템으로, 호주의 모든 농장은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8자리 숫자식별코드가 있다.(출처: 오마이뉴스 2008.9.9.일자 기사, '안전한 쇠고기 자부하는 미국, 왜 호주산 수입할까'(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96149))

표 4. NFAS의 피드롯 인증 기준항목

품질관리	스태프의 훈련
	내부감독 및 부적합 항목 수정
	기록
	데이터 관리
	화학약품 관리
	제품요건 개선
	부적합제품 보고
	리스크 평가와 긴급 대응
식품안전관리	측정기 관리
	시설에 있어 리스크 평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축 취급
	사료 관리
가축 관리	가축 수송 준비
	가축의 거래와 이동
	가축 개체식별
	품질유지 위한 가축 취급
	가축의 수송
	애니멀 웰페어
	맹서 시의 대책
환경보전	바이오 세큐리티
	사고의 보고
	환경보전 위한 필요조건
	배수관리
	지하수의 영향 방지
제품의 정합성	인근 주민에의 영향
	생태계에의 영향
	환경에 관한 사고의 보고
증거 서류	증거 서류
	급여 사료

자료: 오즈미트(National Feedlot Accreditation Scheme standard),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3월호에서 재인용

NFAS의 관리 및 곡물비육장의 감사는 오즈미트(AUS-MEAT)¹⁰⁾가 실시하고

10) 호주의 쇠고기 등급체계는 오즈미트와 MLA(Meat and Livestock Australia)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 중 AUS-Meat의 평가 기준은 지육을 평가하는 등급 기준이며, MLA의 평가 기준은 쇠고기의 각 부위와 숙성기간, 그에 따른 적절한 요리방법까지 감안하였을 때 쇠고기의 연도(Tenderness)를 평가하는 등급체계이다.(출처: 블로그 아침목장, <https://blog.naver.com/mornifarm/221079988359>)

있다. 오즈미트는 호주 식육업계의 다양한 인증 프로그램 개발, 유지, 재검토를 실시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식육처리장의 육질평가에서 곡물비육 쇠고기 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 설정도 이 기관에서 하고 있다.

NFAS는 업계단체의 임의 참여 프로그램이지만, '1982년 수출관리법' 및 '2005년 수출관리규칙(식육 및 식육제품)'에 근거하여 곡물비육 쇠고기와 라벨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표 3>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곡물비육 쇠고기로 수출하려면, NFAS 인증 곡물비육장에서 비육이 필요하다.

호주에서는 판매촉진, 연구개발, 가축위생이나 잔류물질 검사를 위한 재원으로, 육우 거래 시에 1마리당 5호주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촉진·연구개발을 실시하는 MLA와 가축위생,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는 단체의 활동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육우거래에 관련된 과징금은 징수 근거인 '1999년 제1차 산업(소비세) 과징금법'에서 '곡물비육우'에 관해 정의하고 있으며, 과징금 징수·관리를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호주의 육우업계에서는 곡물비육 쇠고기를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레인페드(GF)는 주로 수출용 기준이며, 그레인페드 미성숙우(GFYG)는 주로 호주 국내용 기준이다. 2018년 8월 이전에는 그레인페드와 그레인페드 미성숙우 두 가지의 기준만 있었지만, 2018년 9월부터 새로 그레인페드 피니시드(Grainfed finished, GFF) 기준이 추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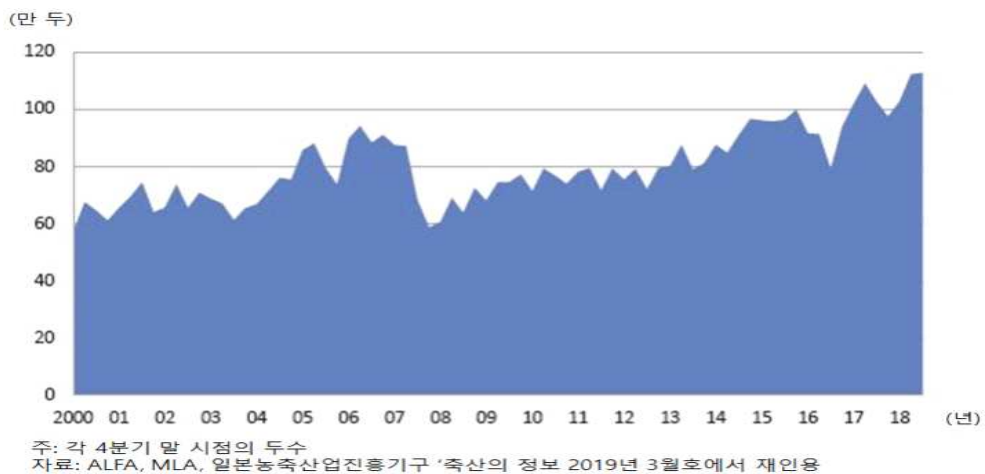
ALFA에 따르면, 그 이유는 2014~2015년에 실시된 NFAS 재평가와 2016년에 완료된 오즈미트 쇠고기 표시용어 재평가 결과에서, 당시 '곡물비육우' 최저 기준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그 배경으로는 호주 쇠고기업계 단체에 의해 개발된 쇠고기 육질평가 프로그램인 미트 스탠더드 오스트랄리아(MSA)¹¹⁾가 확립되면서, 비육일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준에서 쇠고기 맛을 예상할 수 있게 되어, '곡물비육 쇠고기'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그 정의에 유연성을 갖게 함으로써, 생산자나 고객의 선택 폭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GFF를 채용할지는 임의이며, 상업 베이스에서 고객 수요에 대응하여 채용할 수 있는 규격이라고 하고 있다.

11) MSA는 예측되는 쇠고기의 식미와 그 컷에 맞는 조리 방법에 관한 신용 정보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2년 10월호 '쇠고기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호주 MSA 프로그램(<https://lin.alic.go.jp/alic/month/domefore/2012/oct/wrepo02.htm>)'을 참조할 것.

(2) 곡물비육 쇠고기 사육두수 동향

ALFA 및 MLA가 분기별로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국 곡물비육장 사육두수 조사에 따르면, 곡물비육우 사육두수는 2009년 이후 증가 경향에 있으며, 2017년 3월 말 시점에서 처음으로 100만 두를 돌파하여 2018년 9월 말 시점에서는 112만 6,666두로 사상 최고의 사육두수를 기록하였다(그림 10).

그림 10. 피드롯 사육두수 추이



ALFA 및 MLA에 따르면, 곡물비육우 사육두수 증가 요인은 곡물비육장에서 비육에 의해 쇠고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수요의 증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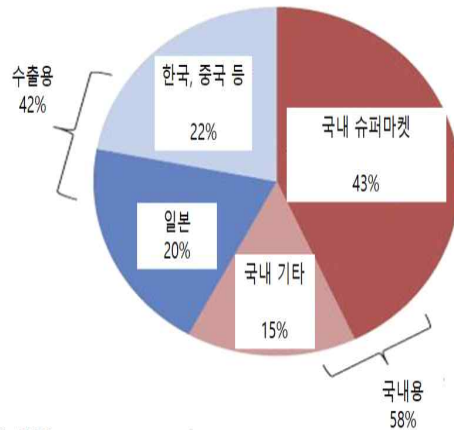
호주의 쇠고기 생산은 광대한 국토를 활용한 방목이 일반적이지만, 기상조건이 불안정한 만큼 자주 가뭄이 발생하는 등 목초생육이 연도와 계절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서 목초 생육 현황에 따른 출하두수나 소 증체에 큰 변동이 생긴다. 즉, 연간을 통해 쇠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불가능하다.

도축장의 입장에서도 방목은 기상조건에 의한 처리두수가 크게 변동하여, 도축장의 안정적 가동과 고객에 대한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곡물비육장에서 비육하는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소를 구입할 수 있어 도축시설 등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호주의 곡물비육우는 과거에는 대부분 일본으로의 수출이 주가 되어왔지만,

ALFA에 따르면, 최근에는 곡물비육 쇠고기 생산량의 58%는 국내용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그림 11).

그림 11. 곡물비육우의 판매처별 비율



주: 수량 기준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3월호에서 재인용

국내용 58% 중 43%는 슈퍼마켓용이 차지하고 있지만,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일정한 품질의 쇠고기를 안정적으로 공수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연간 안정적으로 일정한 품질의 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곡물비육장에서 사육하는 방법은 소매업체 요구에도 딱 들어맞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브랜드를 가진 쇠고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브랜드 쇠고기는 안정적이고도 높은 품질의 쇠고기를 제공하는 것이 특히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안정적이고도 높은 품질의 쇠고기에 대한 요구는 곡물비육 쇠고기 수요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3) 곡물 비육장 사례(퀸즈랜드 잉글우드 피드롯)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단이 2019년 2월에 방문한 곳은 QLD주 브리즈번에서 서쪽으로 300km 거리에 있는 잉글우드 근교의 곡물비육장이었다.

ALFA에 따르면, 호주의 피드롯은 자사에서 소유하는 소를 비육하는 피드롯과 커스텀피드(Customfeed, 위탁비육)라 불리는 고객이 소유한 소를 맡아 비육하는 일에만 특화된 곡물비육장 2가지 종류가 있다. 조사단이 방문한 피드롯은 이 중 커

스텝피드에 특화되어 있는데, 조사 시점에서는 15,000두의 육용우를 사육하고 있었다.

이 곡물비육장에서는 7개 고객사에 대해 커스텀피드를 하고 있지만, 모든 고객의 위탁곡물비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사육두수를 2만 두로 늘리기 위해 시설 확장을 하였다고 한다.

사육하는 소는 호주 Wagyu¹²⁾와 앵거스종¹³⁾나 헤어포드¹⁴⁾ 등 영국종, 브라만¹⁵⁾이나 브라만 교잡종 등 열대종 등 다양하지만, 호주 Wagyu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사육두수 전체 중 비육기간 400일 이상인 소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비육기간 100일 이하의 것이 25%, 비육기간 150~200일의 것이 25%였다.

이 곡물비육장에서 비육된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주요 판매처인 수출국은 중

-
- 12) 일본 소인 화우(和牛)의 영어 표기가 wagyu인데, 구분을 위하여 일본산은 와규, 호주를 비롯한 일본 이외 국가산 화우종은 wagyu로 표기하도록 한다.
- 13) angus. 영국 스코틀랜드 원산의 육우이며, 털은 검고 무각을 특색으로 한다.(출처: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57723&cid=50331&categoryId=50331>). 앵거스종 중 특히 Aberdeen Angus가 유명하다. 원산지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북동부 지역인 애버딘앵거스 주(州)이며, 미국이 주산지이다. 직사각형의 몸통에 네 다리가 짧은 전형적인 소고기의 모습이다. 털빛은 검정색이며 뿔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 다른 품종과 교배하면 모두 뿔이 없는 새끼가 태어난다. 머리는 작고 이마가 넓으며 목이 굵다. 등선이 곧고 복부에 작은 흰 점이 있는 것도 있다. 체질이 튼튼하여 추위에 잘 견디며 방목에 적합하다. 지방질이 적당하여 육질이 좋고 빨리 성장하며 난산의 빈도가 적다. 성질이 거칠고 다소 신경질적이다. 일당 증체량(增體量)은 0.8kg, 도체율은 65~72% 정도이다. 뼈가 12.8%로 적어 정육률이 높은 편이다. 갓 태어난 송아지는 암컷이 27kg, 수컷이 29kg이나, 성장하면 암컷은 450~550kg, 수컷은 800~1,000kg 정도 된다. 임신기간은 275~283일 정도이다.(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65669&cid=40942&categoryId=32626>)
- 14) hereford. 원산지는 영국이며 체형이 육우로서는 작은 편이나 체질이 강하여 넓은 초원을 이동하며, 방목하기에 적합한 품종이다. 1893년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뿔이 없는 헤어포드를 사육하기 시작 하였으며 1955년에는 영국에서도 뿔이 없는 헤어포드가 형성되었다. 그 후 이 품종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분포, 사육되고 있는 품종의 하나로 미국 및 호주 등지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는 육우 품종이다. 특히, 영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교잡종 생산에 헤어포드 수소가 사용되고 있다. 헤어포드종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진한 적색 피모색과 얼굴 전체의 흰색이며, 흰색은 아래턱으로 이어져 아랫배 부위를 따라 흰줄을 이루고 있다. 충분한 근육과 골격구조로 인하여 도체율이 이상적인 육우품종이다. 암소의 경우, 체중이 약 550kg, 수소는 700kg 내외이며, 도체율은 약 65~67%이다.(출처: 네이버Q&A,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5&dirId=50502&docId=22160498&q_b=7Zek7Ja07Y+s650c7KKF&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 15) Brahman. 몸의 빛깔은 회색 또는 붉은색이다. 분포지역은 한국, 미국 중남부,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 브라질 등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와 열대·아열대 지역이다. 몸무게는 암컷 550kg, 수컷 830kg이다. 인도 원산으로 미국에서 수입하여 개량한 종이며, 남아메리카에서는 제부(Zebu)라고도 한다. 몸은 길며, 엉덩이 부분은 넓고 풍만하다. 털은 짧고, 빛깔이 회색 또는 붉은색이며, 조숙성(早熟性)이다. 기생충과 더위에 잘 견디며, 성질이 거친 편이다. 고기소로서 도체율(屠體率)과 정육률이 높고, 육질이 좋다. 주로 고기소의 교잡종을 만드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출처: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05220&cid=40942&categoryId=32626>)

국,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등이며, 요즘은 중국의 수요가 특히 강하다고 한다.

사료는 밀, 보리, 그레이н 사일리지, 면실, 건초, 비스킷 밀 등을 섞어 급여하고 있다. 밀과 보리는 자체 시설에서 매일 압착을 한다고 한다.

곡물비육장 책임자에 따르면, 곡물비육장에서의 비육 수요는 강하지만, 가뭄에 따른 번식암소 도태가 진행되어 앞으로 당분간은 비육우 공급이 적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비육우 가격이 상승하여 수익성이 압박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육두수는 향후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가뭄으로 인한 주변의 곡물가격이 상승하고, 수송비는 비싸지만, 2018년에는 겨울작물이 풍작이어서 안정적인 서오스트랄리아 주들에서 곡물을 구입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 1.

피드롯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습(열대종)



사진 2.

트럭에 적재되어 있는 피더로
사료를 급여하는 모습



사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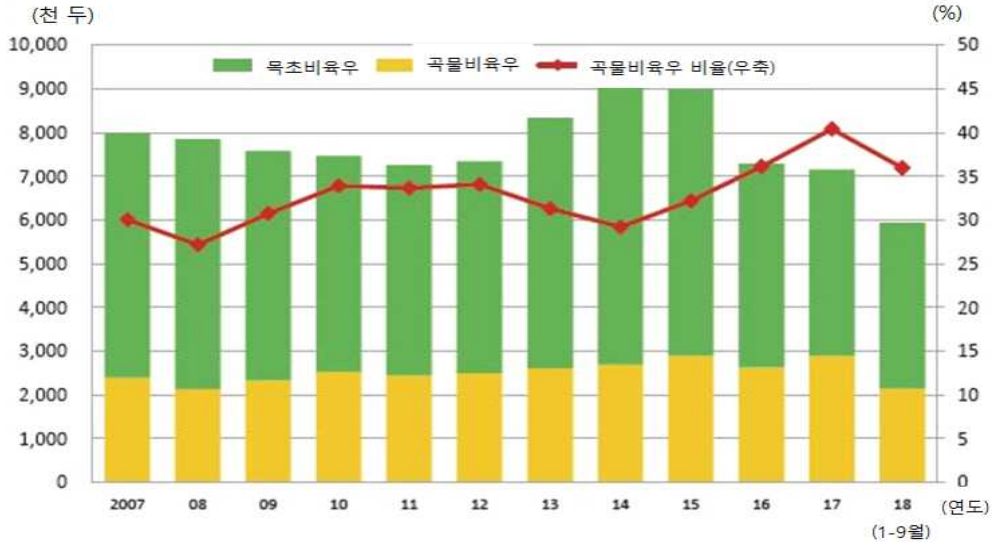
밀, 보리를 압착하는 시설



(4) 곡물비육 쇠고기 생산·수출 동향

곡물 비육 쇠고기 도축두수는 곡물비육 쇠고기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증가 추세에 있다. 곡물비육 쇠고기 도축두수는 2015년 290만 두가 과거 최고였지만, 2017년에는 289만 두(전년 대비 9.9% 증가)로 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 되었다(그림 12).

그림 12 곡물비육우 및 목초비육우 도축두수 등 추이



주 1: 송아지 불포함.

주 2: 목초비육우 도축두수는 도축두수 전체에서 곡물비육우 도축두수를 빼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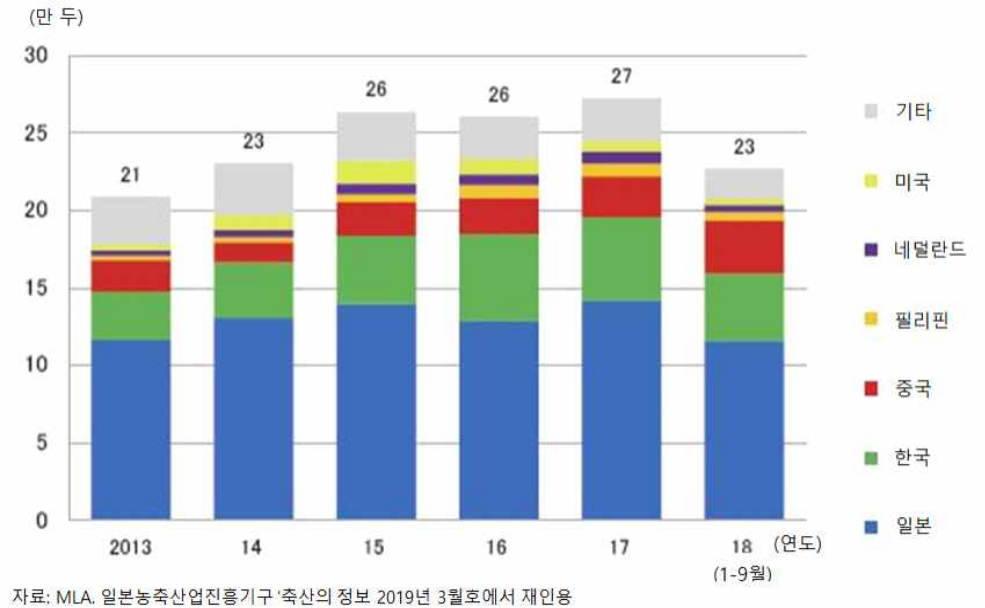
자료: ALFA/MLA, ABS,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3월호에서 재인용

2018년 1~9월 곡물비육 쇠고기 도축두수는 214만 두(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로 곡물비육 쇠고기 사육두수가 과거 최고를 기록한 뒤 이후에는 약간 감소하고 있다. 이는 호주 Wagyu와 고기전용종의 장기비육 등 비육기간이 긴 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뭄에 따른 번식농가의 방목에 의한 증체가 나빠 곡물비육장 도입 당시의 체중이 평소보다 가벼워지고 있고, 곡물비육장에서 비육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르면, 2018년 1~9월의 곡물비육 쇠고기 사육두수가 도축두수 비중은 36%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2017년 40%보다 하락하였지만, 과거 최고의 곡물비육 쇠고기 사육두수를 배경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생산량 증가에 따라 곡물비육 쇠고기 수출물량도 증가 경향에 있다. 2017년에는 50개국 이상에 27만 톤(전년 대비 4.7% 증가)이 수출되었다(그림 13). 주요 수출 파트너 국가는 일본, 한국 및 중국인데, 이 3개국에서 곡물비육 쇠고기 수출 물량의 85%를 차지한다. 또한, 일본은 곡물비육 쇠고기 수출 물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이다.

그림 13 곡물비육우 수출량 추이



또한, 2018년 1~9월의 수출량은 곡물비육 쇠고기 도축두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약 23만 톤(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으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일본(약 12만 톤, 8.4% 증가), 한국(약 4만 톤, 13.5% 증가) 및 중국(약 3만 톤, 87.9% 증가) 등 모두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이 크게 늘고 있다.

호주에서는 ‘와규 유전자 교배비율이 50% 이상인 것’을 Wagyu로 부르고 있다. 호주 Wagyu협회에 따르면, 2018년 호주 Wagyu 종부 개체 수는 약 37만 두로, 2014년 17만 두보다 약 2배 증가하였다. 호주 Wagyu협회는 2022년에는 Wagyu 종부두수가 76만 두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에 따르면, 2017년 호주 Wagyu 도축두수는 약 10만 두로 곡물비육우 도축두수 260만 두의 약 4%를 차지한다. 2020년에는 호주 Wagyu 도축두수는 약 25만 두까지 증가하여, 곡물비육우 도축두수가 320만 두 정도까지 증가할 경우 약 8%를 차지할 것이라는 것이다.

호주 Wagyu 사육두수 증가에 의해, 호주 Wagyu의 비육기간은 일반적인 육용우 비육기간보다 크게 길기 때문에, 곡물비육장에서 사육기간이 긴 것도 곡물 비육우 사육두수가 증가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호주 Wagyu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 호주 국내에서는 호주 Wagyu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호주 Wagyu 생산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NSW주에서는 1차산업부(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이하 DPI¹⁶⁾) 주도하에 호주 Wagyu의 수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주요 수출 상대국의 요구를 생산자가 이해하기 위한 수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DPI에 따르면, 향후 예상되는 호주 Wagyu의 생산 증가에 따라 수출 상대국 소비자의 요구 등을 호주 Wagyu 생산자 자신이 이해하고, 각각의 생산에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수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내용은 사전 연수, 현지 조사, 팔로 업 연수 세 가지로 나뉘며, 현지 조사에서는 호주 Wagyu 생산자가 중국 상하이와 대만 타이베이로 가서, 호주 Wagyu 수입업자 인터뷰와 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실시에 의해 업계단체나 참여 생산자들은 호주 Wagyu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확신하였을 뿐 아니라, 과제와 개선점 등 다양한 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고 평가된 것이다. 또 NSW주 정부는 지역의 고용확대를 목적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호주 Wagyu 생산자의 하나에 330만 호주 달러(2억 6,730만 엔=28억 665만 원)의 투자를 실시하는 등, 호주 내에서 호주 Wagyu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 4. 호주 wagyu 생산농가의 방목 모습



16) NSW주 DPI 웹사이트(www.dpi.nsw.gov.au)

4. 호주의 쇠고기 수출 환경

(1) 무역협정 체결 상황

호주는 2019년 1월 시점에서 세계무역기구(WTO)협정 이외에 개별적으로 19개국과 11가지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표 5, 6, 7). 미국 및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아시아권 국가와의 협정이다.

표 5. 호주의 무역협정 체결 상황(기 발효 중인 협정)

명칭	발효년도	비고
호주·NZ 경제관계 긴밀화 협정	1983	-
호주·싱가폴 자유무역협정(SAFTA)	2003	-
호주·미국 자유무역협정(AUSFTA)	2005	-
호주·태국 자유무역협정(TAFTA)	2005	-
호주·칠레 자유무역협정(ACI-FTA)	2009	-
ASEAN·호주·NZ 자유무역협정(AANZFTA)	2010	참가국: 호주, 뉴질랜드, 부르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호주·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MAFTA)	2013	
호주·한국 자유무역협정(KAFTA)	2014	
호주·일본 경제제휴협정(JAEP)	2015	
호주·중국 자유무역협정(ChAFTA)	2015	
TPP11협정(CPTPP)	2018	참가국: 호주, NZ, 일본, 부르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3월호에서 인용.

표 6. 호주의 무역협정 체결 상황(미발효, 합의 완료 중인 협정)

명칭	발효년도	비고
태평양 경제관계 긴밀화 협정(PACER plus)	2017합의	참가국: 호주, NZ 및 8개 태평양제도제국(쿡제도, 킬리바스공화국, 나울공화국, 니우에, 사모아독립국, 솔로몬제도, 통가왕국, 투발)
호주·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제휴협정(IA-CEPA)	2018합의	-
호주·페루 자유무역협정	2018합의	-
호주·홍콩 자유무역협정	2018합의	-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3월호에서 인용.

표 7. 호주의 무역협정 체결 상황(교섭 중인 협정, 2019년 2월 기준)

명칭	비고
호주·EU 자유무역협정	-
호주·걸프만 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GCC) 자유무역협정	참가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호주·인도 포괄적경제협력 협정	-
환경물품에 관한 협정	-
호주·태평양동맹 자유무역협정	호주, 콜롬비아, 칠레, 페루, 멕시코
동아시아지역 포괄적 경제체휴협정(RCEP)	참가국: NZ, 일본, 중국, 호주 및 ASEAN제국(부르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TISA)	참가국: WTO가입 23개국(EU 28개국은 1개 국가로 카운트)

자료: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3월호에서 인용.

(2) TPP11협약 참가국에 대한 쇠고기 관세율 등

호주는 TPP11협정의 발효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던 캐나다, 멕시코 및 페루에 새로운 시장접근을 얻게 된다. 또 최대 쇠고기 수출 대상국인 일본은 호주·일본 경제연계협정(이하 호·일 EPA) 이상으로 관세율이 줄어든다.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뉴질랜드(NZ), 싱가포르 및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관한 관세는 이미 체결이 끝난 무역협정에 의해 면세였다. TPP11협정에 근거하여 일본, 캐나다, 멕시코 및 페루에 대해 쇠고기 수출에 관한 관세율 및 관세물량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일본

일본은 호주에서 쇠고기 및 우설(牛舌, 牛タン, 소 혀바닥 고기)이나 횡격막근 고기(ハラミ) 등 소 내장고기의 최대 수출국이다. TPP11협정이 2018년 12월 30일 발효되면서 2018년 12월 30일~2019년 3월 31일 일본 쇠고기 수출에 관한 관세율은 냉장 쇠고기는 27.5%로 호·일 EPA보다 약간 낮지만, 냉동 쇠고기는 호·일 EPA에 따른 관세가 26.9%로 TPP11협정에 근거하여 관세율보다 낮아, 호·일 EPA에 따른 관세율이 적용된다(표 8).

표 8. TPP11 협정 발효 후 일본 수출용 쇠고기 수출에 관한 관세율, 관세 쿼터

호·일 EPA					TPP11협정				
품목, 관세 코드	냉장0201		냉동0202		품목 관세 코드	냉장 0201, 냉동 0202			
	관세율(%)	SG발효기준 (단위:톤) ^{주2}	관세율(%)	SG발효기준 (단위:톤) ^{주2}		관세율 (%)	SG발효기준 (단위:톤) ^{주3}	SG발효시 세율(%) ^{주3}	
2018.4	29.3	136,700	26.9	201,700	2018.12	27.5	147,500	38.5	
2019.4	28.8	138,300	26.7	203,300	2019.4	26.6	601,800	38.5	
2020.4	28.2	140,000	26.4	205,000	2020.4	25.8	613,600	38.5	
2021.4	27.6	141,700	26.1	206,700	2021.4	25.0	625,400	30.0	
2022.4	27.0	143,300	25.8	208,300	2022.4	24.1	637,200	30.0	
2023.4	26.4	145,000	25.6	210,000	2023.4	23.3	649,000	30.0	
2024.4	25.8	(주2)	25.3	(주2)	2024.4	22.5	660,800	30.0	
2025.4	25.3		25.0		2025.4	21.6	672,600	30.0	
2026.4	24.7		24.1		2026.4	20.8	684,400	30.0	
2027.4	24.1		23.2		2027.4	20.0	696,200	30.0	
2028.4	23.5		22.3		2028.4	18.1	702,100	20.0	
2029.4	이하 같음		21.3		2029.4	16.3	708,800	20.0	
2030.4			20.4		2030.4	14.5	713,900	20.0	
2031.4			19.5		2031.4	12.6	719,800	20.0	
2032.4			이하 같음		이하 같음	2032.4	10.8	725,700	18.0
2033.4						2033.4 월 이후	9.0	전년도 SG 발효 기준+ 11,800톤	전년도 세율보다 1%씩 삭감

주 1: 셰이프가드(SG) 발동시에는 MNF세율(38.5%)이 적용됨.

2: 양국간 조정 교섭 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10년째 발효기준이 적용됨.

3: 2032년 4월 이후에는 SG가 발동되면, 다음 연도에는 SG 발동 시 세율을 삭감하지 않음. 4년간 SG 발동이 없으면 종료.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TPP에 있어서 중요 5개 품목 등의 교섭 결과', DFAT

또, 우설이나 횡경막근 고기 등 소 내장고기에 대해서는 첫 해부터 호·일 EPA 보다 낮은 관세율이 되는 데, 우설은 11년 만에 횡경막근 고기 등 소 내장고기는 13년 만에 철폐된다.

나. 캐나다

호주는 캐나다와 개별적으로 무역협정을 맺지 않고 있지만, WTO협정에 근거하여 캐나다에 대해 3만 5,000톤 분의 면세 쿼터를 가지고 있다. 2017년 캐나다로

수출한 쇠고기 수출물량은 약 2만 톤으로, 수량 기준으로는 8번째 수출시장 국가이다.

캐나다로 수출되는 쇠고기는 대부분 냉동 가공용 쇠고기이다. TPP11협정이 발효될 경우, 면세 쿼터 밖의 쇠고기에 관한 관세율 26.5%는 11년 만에 철폐된다(표 9).

표 9. TPP11 협정 발효 후 캐나다 수출용 쇠고기 수출에 관한 관세율

품목, 관세율	냉장 0201, 냉동 0202
	관세율(관세상당 외의 2차 세율) (%)
발효 전	26.5
2018년 12월 30일, 31일	24.0
2019년	21.6
2020년	19.2
2021년	16.8
2022년	14.4
2023년	12.0
2024년	9.6
2025년	7.2
2026년	4.8
2027년	2.4
2028년	철폐

자료: DFAT,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3월호에서 인용.

다. 멕시코

호주는 멕시코와도 개별적으로 무역협정을 맺지 않았다. 2017년 멕시코 쇠고기 수출물량은 1,000톤 정도로 적지만, 멕시코는 소 내장고기를 먹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멕시코용 소 내장고기의 수출이 많다. 2017년에는 금액 기준으로 약 300만 달러(3억 3,000만 엔=34억 6,500만 원: 1미국 달러=110엔=1,155원) 정도의 소 내장고기가 수출되었고, 호주로서는 15번째 수출시장 국가이다.

TPP11협정 발효에 따른 쇠고기에 관한 관세는 10년 만에 철폐되면서, 소 내장고기에 관한 관세는 냉동 횡경막근 고기 및 인사이드 스킨¹⁷⁾를 제외하고 즉시 철폐된다(표 10). 또한 냉동 횡경막근 고기 및 인사이드 스킨에 관한 관세는 15

년 만에 철폐된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멕시코는 연간 186만 톤으로 많은 쇠고기를 소비하였으며, 대부분 자국의 생산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연간 20만 톤 정도의 쇠고기를 수출하고, 연간 13만 톤 정도의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국내의 상승하는 쇠고기 소매가격 억제 및 쇠고기 수입 상대국의 다양화를 위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연간 20만 톤의 면세 쿼터를 두고 있다(북미자유무역협정¹⁸)으로 이미 멕시코 수출용 쇠고기 수출이 면세인 미국 및 캐나다(제외). 수입 상대국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멕시코에 TPP11협정으로 관세가 내리게 되는 호주는 그 선택 사항의 하나가 될 전망이며, 호주에서 멕시코용 쇠고기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표 10. TPP11 협정 발효 후 멕시코 수출용 쇠고기 수출에 관한 관세율

품목, 관세율	냉장 0201	냉동 0202
	관세율 (%)	관세율 (%)
발효 전	20.0	25.0
2018년 12월 30일, 31일	18.0	22.5
2019년	16.0	20.0
2020년	14.0	17.5
2021년	12.0	15.0
2022년	10.0	12.5
2023년	8.0	10.0
2024년	6.0	7.5
2025년	4.0	5.0
2026년	2.0	2.5
2027년	철폐	철폐

자료: DFAT,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축산의 정보' 2019년 3월호에서 인용.

- 17) 쇠고기 부위의 하나로 횡경막 기부(基部)에 있는 「복횡근(腹橫筋)」을 의미한다. 갈비살(バラ肉)의 내측·횡격막의 횡부분으로, 외측 갈비(バラ)의 내측에 위치하는 부위이다.(출처: (일어)비프팬스: <https://beef-fans.com/insideskirt/#toc2>)
- 18)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의 3개국으로 구성된 자유무역협정으로, 1994년 정식 발효되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협정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는다며 2017년 8월 상대국들과 재협상을 시작했고, 발효된 지 24년 만인 2018년 9월 30일 새롭게 합의한 무역협정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라고 명명하였다.(출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9961&cid=43667&categoryId=43667>)

라. 페루

호주는 페루와도 개별적으로 무역협정을 맺지 않고 있지만, 2018년 2월에 2개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관한 서명을 한 상태이다. TPP11협정에서는 쇠고기에 관한 관세가 철폐되려면 11년이 걸린다. 호주와 페루 간 자유무역협정은 아직 미발효 상태이지만, 5년째에 관세가 철폐된다면 쇠고기에 관한 관세는 2개국 간 자유무역협정 쪽이 유리하다. 다만 2017년 페루로 수출한 쇠고기 수출 실적은 4톤으로 매우 적은 물량이다.

(3) TPP11협정 평가

호주는 TPP11협약 참가국에 대한 농축산물 수출액이 연간 120억 호주 달러(9,720억 엔=1조 206억 원)에 이르며, 호주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의 23% 정도를 차지한다. TPP11협정 발효로 55억 호주 달러(4,455억 엔=4조 6,777.5억 원) 이상에 상당하는 과세 대상 농축산물 수출로 유리한 수출 조건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 정부는 이 가운데에서도 수출금액 비중이 큰 쇠고기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일본을 대상으로 호·일 EPA 이상의 관세 삭감을 따낸 것이 큰 성과라고 말한다¹⁹⁾. 또한, 일본을 위한 소 내장고기 수출에 관한 관세철폐, 캐나다 쇠고기 수출에 관한 관세철폐, 멕시코용 쇠고기 및 소 내장고기 수출에 관한 관세철폐가 또 다른 커다란 성과로 보고 있다.

업계단체들도 대체로 TPP11협정 발효를 환영하였다. 업계단체들도 호주의 최대 쇠고기 수출 대상국인 일본의 관세감축과 캐나다, 멕시코 등 새로운 국가에 대한 시장접근 조건을 획득한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단의 현지조사에서 TPP11협정에 관해서 물어본 의견의 대부분은 정부나 업계단체의 의견과 비슷하였다. 반면, 업계단체에서는 일본과 미국과의 무역협상의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본시장에서 최대 경쟁국은 미국이기 때문에, 얼마나 미국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획득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호주산 쇠고기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알려졌다.

19)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의 성명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의 「해외정보」 2018년 10월 31일 발표, 「TPP11, 12월 30일 발표」를 참조 할 것.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324.html)

쇠고기 주요 수출국인 캐나다, NZ가 일본시장에서 관세 측면에서 호주와 같은 조건이 됨으로써, 이들 국가에서 수입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아직 적고, 호주산 쇠고기 공급망이 구축되면서 호주산 쇠고기의 위협이 될 정도로 양국의 일본행 쇠고기 수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한편, 2018년 5월 호주정부 당국과 일본산 신선 쇠고기 수출 조건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르면, 17년 만에 일본에서 호주 쇠고기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단의 조사에서, 시드니 근교에서 일본산 와규²⁰⁾ 판매에 주력하는 오사와 기업(OSAWA ENTERPRISE)을 방문하였다.

이 회사는 육류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정육으로 구매하여 슬라이스 및 패킹하고, 살코기 상태에서 외식점이나 소매점에 판매하고 있다. 조사 시점에서는 일본산 와규 월 취급물량은 400kg 정도로, 메인 판매 상재료(商材料)인 호주산 Wagyu의 월간 물동량 25톤 정도와 비교하면, 수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많지는 않다. 그러나 이 회사에서는 고베비프²¹⁾ 등 유명 브랜드 쇠고기 수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물동량 증가가 전망된다.

주요 판매처는 정육점을 비롯한 식당이며, 그 중에서도 중국인이 경영하는 가게에서 수요가 강하다는 것이다.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호주의 중국인 사이에서도 휘귀²²⁾(현지에서는 핫포트로 부름)가 인기를 끌고 있어, 휘귀용 일본산 와규 슬라이스

20) 화우(和牛). 오늘날 일본 재래종에서부터 순수 육용종으로 개량되어 사육되고 있는 일본산 육용종을 총칭하는 것이다. 화우가 어디로부터 도래하였는가에 대한 정확한 학설은 없으나, 아시아 대륙에서부터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갔다는 학설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다. 화우에는 현재 4종류의 품종이 있는데, 흑모화종(黑毛和種), 갈모화종(褐毛和種), 무각화종(無角和種), 일본단각종(日本短角種)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흑모화종이 가장 대표적이어서 전 화우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다. 흑모화우는 오늘날 현존하고 있는 일본 재래종 미시마소(見島牛)에서 기원한다. 원래는 역용이 주 사용목적이었으나, 메이지(明治)시대 이후 쇠고기가 식생활에 이용되면서부터 역육겸용종(力肉兼用種)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품종의 피모색은 흑갈단색이며, 짧고 작은 뿔이 있다. 체격은 소형종에서는 큰 편으로서, 성숙한 암소의 체중은 420kg이고, 수소의 체중은 700kg이다. (출처: 네이버카페 미트샵: <https://cafe.naver.com/meatshop/2246>)

21) 고베비프(神戸beef)는 효고현(兵庫縣)에서 생산된 타지마우시(但馬牛) 라는 흑모화종(黑毛和種)에서 얻은 지육이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타지마소(但馬牛)의 명칭에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쇠고기 브랜드명이다. 예전의 정식명칭인 고베육(神戸肉)에서 일반에게는 고베 소(神戸牛)로 불렸다. 일본 3대 화우의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다.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는 유럽 등을 중심으로 지명도가 높고, Kobe Beef로 알려져 있다. (출처: (일)프리백과사전, 『위키페디아(Wikipedia)』)

22) 중국식 샤브샤브(火鍋). 중국식 샤브샤브의 특징은 필필 끓는 육수로 만든 탕에다가 육류, 해물, 채소, 면류 등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집어넣는다는 점이다. 탕은 색깔에 따라 흰색과 노란색 두 가지가 있다. 흔히 두 가지 탕을 함께 주문하는 원앙(鴛鴦) 스타일이 일반적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78315&cid=48179&categoryId=48239>)

이스가 잘 팔린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산 와규 판매가격은 호주산 Wagyu의 3~5배, 통상 호주산 쇠고기의 5~6배로, 가격이 높다는 점이 판매상의 과제이다. 또, 일본산 와규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평가는 기름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많으며, 좀처럼 리피터와 연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 검역에 시간이 걸리고 수중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유효기간이 짧아 판매하기 어렵다는 과제도 있다고 한다.

일본산 와규에 대한 이해가 없어 고객으로부터 통상 호주산 쇠고기에 비해 로스가 너무 크다는 클레임도 있다며, 이 회사 대표이사인 오사와 씨는 일본산 와규 판매확대를 위해서는 호주사람들에게 일본산 와규의 차이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사진 5, 6).

사진 5. 호주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고시마산 화우



사진 6. 일본산 화우의 서로인(아래)와
호주산 wagyu 서로인(위) 비교



오사와 대표는 주부가 가정에서 와규 조리방법 소개를 받는 등 와규에 적합한 먹는 방법을 침투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오사와 씨는 조금이라도 화우를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언론과 SNS 등을 활용하거나, 쇠고기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컷팅 방법 등을 지도하는 동영상을 자신이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등 일본산 와규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5. 호주의 최근 소 사육두수 및 가격 동향과 향후 전망

2019년 3월 호주 농업자원경제과학국(이하 ABARES) 주최로 개최되었던 농축산물 아웃룩 대회에서는 쇠고기에 대한 수급 현황과 전망이 발표된 바 있다. ABARES에 따르면, 2018/19년도 소 도축두수는 가뭄에 의해 암소를 중심으로 도태가 증가하면서, 841만 5,000두(전년도 대비 6.3% 증가)로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표 11).

표 11. ABEARS의 호주 쇠고기 수급 전망

구분	2016/17 년도	2017/18 년도	2018/19 년도 (잠정치)	2019/20 년도 (예측치)	전년대비 증감율 (%)
소 총 사육두수 (백만 두)	26.2	26.4	24.8	23.5	- 5.4
그 중 육용우 사육두수 (백만 두)	23.6	23.8	22.4	21.1	- 5.8
소 도축두수 (천 두)	7,423	7,913	8,703	8,410	- 3.4
쇠고기생산량 (천 톤)	2,069	2,238	2,352	2,259	- 3.9
쇠고기수출량 (천 톤)	991	1,122	1,222	1,160	- 5.0
그중 중국수출	104	140	228	290	26.9
미국 수출	204	309	302	270	- 10.7
일본 수출	274	235	241	200	- 17.0
한국 수출	179	169	189	125	- 33.8
생우수출두수 (천 두)	817	885	1,125	1,065	- 5.3
육우거래가격 (천 센트/kg)	535	452	446	500	12.1

주: 2016/17년도만 ABEARS 주최 아웃룩 대회(2019년 3월 개최) 시 제시한 실제치이며, 이후는 ABEARS의 최근 발표치임.

자료: ABEARS(<https://www.agriculture.gov.au/abares>)

2019년에도 호주에서는 심각한 가뭄이 계속되고 건조한 상황이 산불로 이어지는 등 피해가 크며, 설상가상으로 소 주산지인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였다. 이에 최근의 육용우 수급 및 가격 상황에 대해 다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아웃룩 당시 2018/19년도 쇠고기 생산량은 비교적 체중이 가벼운 암소 도축 증가에 따라 1두당 도체중 저하가 예상되므로, 도축두수 증가분을 일정 정도 상쇄하고, 231만 7,000톤(동 3.5% 증가)으로 약간 증가를 전망하였는데, 이후 발표된 잠정치는 235만 2,000톤으로 35,000톤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 외의 항목에서도 2019년 3월 발표 아웃룩 발표치와 최근의 실제치 및 잠정치·예측치에 다소 차이

가 있다.

도축두수가 증가하면서 2019년 6월 소 사육두수(젖소 포함)는 2,550만두(전년 대비 1.2% 감소)로 2000년 이후 2번째로 적은 두수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쇠고기 수출물량은 쇠고기 생산량 증가에 따라 117만 5,000톤(전년도 대비 4.6% 증가)으로 증가를 전망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이 오를 것으로 내다보았다.

2019/20년도 이후에는 가뭄에서 회복할 경우에는 축군 확대를 위해 암소를 중심으로 보류가 확대되어, 도축두수 및 쇠고기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축군 재구축에 의해 소 사육두수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가뭄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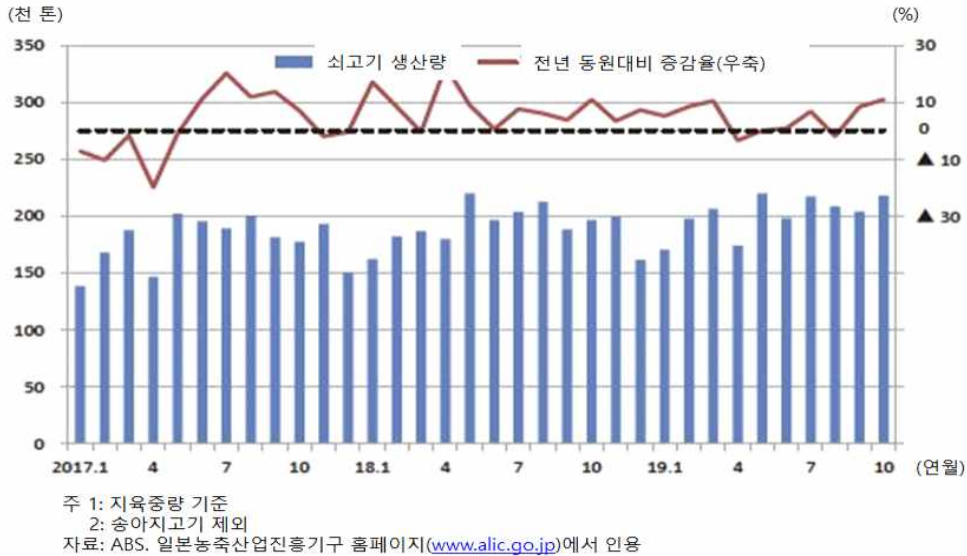
2018년에 과거 최고 사육두수를 기록한 곡물비육 쇠고기가 높은 사료가격, 비육용 송아지(肥肉素牛) 가격 상승, 비육용 송아지 감소 등으로 증가는 예상되지 않는다.

ABEARS는 2019/20년도에도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소 사육두수가 1990년대 초반 이후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쇠고기 생산량은 2개월 연속 전년 동월보다 상회하였다. 호주통계국(ABS)에 따르면, 2019년 10월 성우 도축두수는 퀸즈랜드 주 및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발생한 가뭄으로 인해 암소를 중심으로 도태가 증가하면서 76만 7,600마리(전년 동월 대비 11.5% 증가)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도축두수 내역을 보면, 숫소는 33만 9,000마리(0.8% 감소), 암소는 42만 8,400마리(23.6% 증가)였다. 도축두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암소의 비율은 55.8%로 11개월 연속 50%를 웃돌았다.

두당 도체중은 284.2kg(0.5% 감소)으로 조금 감소하였지만, 동월 쇠고기 생산량(지육기준)은 21만 8,145톤(10.9% 증가)으로 2개월 연속 전년 동월을 넘어섰다(그림 14).

그림 14. 쇠고기 생산량 등 추이



ABARES는 2019년 12월 10일 ‘Agricultural Commodities’에서 2019/20년도 (7월~이듬해 6월) 쇠고기 수급 전망을 발표하였다. 이 전망은 분기에 1번 공개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9/20년도 소 총사육두수는 그동안 가뭄의 영향에서 축군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암소를 중심으로 도태를 계속, 2,350만 두(전년도 대비 5.4% 감소)로 다소 감소하여, 1990년대 초반 이후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소 총사육두수 감소로 소 도축두수는 841만 두(3.4% 감소), 쇠고기 생산량은 225만 9,000톤(3.9% 감소)으로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쇠고기 수출 물량은 쇠고기 생산량의 감소로 116만 톤(동 5.0% 감소)으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였다. 수출 대상국별로 보면, 중국 수출 물량이 지난 전망(2019년 9월)보다 상향 조정되었다. 그동안 호주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었던 일본과 순위가 바뀌어, 2019/20년도에는 중국이 최대의 수출국이 될 전망이다.

2019년에는 쇠고기 거래가격이 호주 국내에서는 안정되었지만, 국제가격은 급상승하고 있다. 호주의 육우거래 가격은 아시아 지역에서 ASF(아프리카 돼지열병)가 발생됨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돼지고기 공급 부족에 의해 세계적으로는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돼지고기 대신 쇠고기로 육류 수요가 대체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이에 쇠고기 1kg당 500호주 센트(동

12.1% 상승, 1호주 달러=79엔 기준, 395엔=4,147.5원)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MLA는 2019년에는 극심한 가뭄에 따라 심각한 사료 부족과 이용 가능한 수자원 감소로 축군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업계가 경험한 적도 없는 해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강한 수요로 쇠고기 가격은 안정된 수준이었다. 육우 거래가격의 지표가 되는 EYCI 가격은 가뭄에 따라 목초 상태가 악화되면서 목초비육업자의 수요가 줄어들어, 3월 12일에 도체중 1kg당 385호주 센트(304엔=3,192원)로 2014년 12월 이후 최저가가 되었지만, 빅토리아 주에 내린 강우에 의해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고, 몇 주 안에 500호주 센트(395엔=4,147.5원)를 넘었다(그림 15).

그림 15. 최근 EYCI 가격 추이



자료: MLA

2019년 7월의 강우에 의해 8월에는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그리고 11월에도 국제 수요가 커지면서 쇠고기 가격이 약간 상승하였지만, 500호주 센트 안팎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2019년 12월 18일 가격은 483 호주 센트(382엔=4,011원)를 기록하였다.

또한, 국제시장의 중요한 지표인 대미 가공용 쇠고기가격(90CL, FAS²³)은 11

23) 90CL(케미칼린)은 적육률(赤肉率 90%의 가공용 쇠고기 벌크 팩, FAS는 호주의 항구의 선측도(船側渡) 가격이다. 선측도 가격이란 price of alongside the ship으로, 본선인도가격이라고도 한다. 선박

월 1kg당 968호주 센트(765엔=8,032.5원)로 정점에 이르며, 그 뒤에도 928호주 센트(733엔=7,695.5원)로 기록적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6. 맺음말

호주에서는 20년 만에 처음이라는 심각한 가뭄이 발생하였으며, 홍수와 산불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암소를 중심으로 성우 도축두수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곡물비육 쇠고기 수요에 따른 곡물비육장 사육두수는 과거 최고를 기록하면서, 곡물비육 쇠고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호주를 포함한 환태평양 11개국간의 협정인 TPP11협정이 발효되었으나, 향후 쇠고기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TPP11협정에 근거한 관세율 측면에 서도 일본과 호주의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한 기존의 관세율과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호주의 쇠고기 수출입량이 단기간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에는 어렵다.

더욱이 일본 화우의 호주 수출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TPP11과 같은 국제 협정에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한우고기 수출의 확대 가능성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을 통해 호주의 쇠고기 생산은 잦은 가뭄 등의 경험을 거쳐, 곡물비육장이 가뭄의 영향을 완화하는 리스크 헤지 기능으로서 중요성을 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본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곡물비육 쇠고기는 호주 국내 소매업체의 수요 증가와 한국, 중국 등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 수요 증가에 따라 곡물비육장 사육두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발송처와 비육일수 등을 다양화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현재 호주의 쇠고기 생산량은 가뭄의 영향을 받아 엄청나게 늘었지만, 향후 기상조건이 회복될 경우에는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이나 일본으로의 수출량도 향후 감소할 수 있다. TPP11협정 발효, 단기적으로는 호주

이 접안되어 있는 육지 부두와 접한 선박의 부분이나 선박과 접한 육지부분. 해운실무에서는 화물이 선측으로 넘어왔을 때 또는 선측에서 넘어갈 때 누구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는지에 따라 가격조건이 결정되며, 그러므로 '선측'은 가격조건을 분기점이 된다.(출처: 선박항해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428631&cid=42329&categoryId=42329>)

· 일본 EPA에 따른 관세율과 큰 차이가 없어, TPP11협정에 의한 관세율 삭감보다 가뭄으로 인한 쇠고기 생산에 영향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가 대일 수출물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미국의 무역협상의 향방, TPP11협정 발효 후 캐나다 및 NZ의 일본 쇠고기 수출 동향,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 호주산 쇠고기 수요 동향 등, 향후 일본의 호주산 쇠고기 수입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다양하다. 한국과 일본의 안정적인 쇠고기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들 동향을 계속 주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충식,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20년 2월호(9권 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2
- 허 덕 외, '호주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20년 4월호(9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2
-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호주의 쇠고기 생산·수출 동향', 「축산의 정보」 2019년 3월호
-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TPP11, 12월 30일 발효', 「해외정보」2018년 10월 31일 발표
-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쇠고기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호주 MSA 프로그램', 「축산의 정보」 2012년 10월호
- 일본농림수산성, 'TPP에 있어서 중요 5개 품목 등의 교섭 결과'(www.maff.go.jp)
- 농민신문 '호주, 3조 규모 가뭄 전용 기금 조성 착수'2018.10.31.일자 기사.
- 오마이뉴스, 안전한 쇠고기 자부하는 미국, 왜 호주산 수입할까'2008.9.9일자 기사
- 블로그 아침목장(<https://blog.naver.com/mornifarm/221079988359>)
- 일본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 호주축산공사 홈페이지(<https://www.trueaussiebeef.co.kr/>)
- ABEARS 홈페이지(<https://www.agriculture.gov.au/abares>)
- ALFA 홈페이지(<https://www.feedlots.com.au/association>)
-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 네이버Q&A, (<https://kin.naver.com/qna>)
- 두산백과
- 선박항해용어사전
- 일본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https://en.wikipedia.org>)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비프팬스(일어, <https://beef-fans.com/insideskirt/#toc2>)